

■ 르포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는 지금



문 닫은 온천... '뚝' 끊긴 관광객

영업 중단 한달째에 접어든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지구 내 '지리산 온천랜드'. 휴일인 28일에도 주차장이 텅 비어있고 인근 식당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가 휘청거리고 있다. 온천지구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지리산 온천랜드' (이하 온천랜드)가 개장 12년 만에 처음으로 휴업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 관광업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휴일인 28일, 전남도내 유명 관광지인 가을단풍을 구경 나온 인파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구례군 산동면 탐정리와 관산리 일대 온천지구는 한산했다.

이 지역은 지리산의 수려한 경관, 화엄사·천은사 등의 천년고찰과 가깝고 게르마늄·칼슘 등 인체에 유익한 광물질이 풍부한 온천수로 유명했던 최고의 종합관광지. 하지만 가장 큰 온천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이다.

지난 1995년 지리산 온천시대의 문을 연 주식회사 '지리산 온천랜드'(대표 김종업·연면적 3만3천58

적자 허덕... 개장 12년만에 휴업

골프장 허가 싸고 힘겨루기 소문

m) 측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지난 10월1일 영업을 중단했다. 온천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매달 1억5천 만원의 적자를 고 민하던 회사 측이 종합물놀이 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객실(신관)을 제외한 온천시설의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이곳이 휴장에 들어가면서 건너편에 있는 식당가도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다.

하루 1만여 명의 입욕객이 찾아 노천탕·사우나(5곳)·신관 객실(86실)이 가득 찼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됐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상인들은

휴업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식당 주인 김모(50)씨는 "지나해 단풍철에는 하루 120여 명의 손님이 왔는데, 요새는 20명도 되지 않는다"며 "온천랜드 측이 해마다 쌓여가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골프장 부지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다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온천랜드 관계자도 "골프장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적자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 자체를 취소하고 다른 지자체에 우선 투자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골프장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온천랜드 측의 투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군수도 최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리산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온천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것을 골프장 건설과 연계시켜 상인들을 불모로 잡아 군을 압박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 없이 골프장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안원주기자 ahj@kwangju.co.kr

수능부정 새 기법

'마이크로 칩' 비상

경찰, 유통 경로 수사

2008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극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로 칩을 이용한 부정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수능시험을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 경찰에 탐문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부정행위는 마이크로 칩과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이다. 연필에 달린 카메라로 시험 문항을 비춰주면 외부에 있는 '도우미'(커닝 교사)가 문제를 푼 뒤 수험생에게 불러주는 형태다. 수험생은 귀 속에 넣은 마이크로 칩을 통해 정답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지난 25일 '수능부정 방지 태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 광주·전남 주요 전자상가 등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유통 경로 파악



및 첩보 수집에 나섰다. 또 마이크로 칩과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 행위가 일정 반경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각 지역 교육청과 함께 수능 당일 고사장 주변 1~2km 이내 무단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능방지 TF팀'은 광주시·전남도 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 첩보 수집 ▲인터넷을 통한 수능 부정 모의 행위 감시 ▲교육청 '수능부정신고센터' 고발 사건 수사 등을 맡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343) 김중두



'가스 폭발' 일가족 3명 중화상

어제 광주 북구 응봉동

28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응봉동 최모(여·43)씨의 2층 집에서 가정용 LP 가스가 폭발, 최씨와 아들(8·말(7) 등 일가족 3명이 얼굴과 가슴 부위에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폭발로 거실과 안방 창문 유리창 10장이 깨지고 화재가 발생, 8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아침밥을 지으려고 가스레인지에 쪄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최씨의 집은 전남 LP 가스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바꾸기 위해 S가스배관 전문업체에 공사를 의뢰, 교체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은 LP 가스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과 임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 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가정용 LP 가스 1통(20kg)이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할 경우 99.174m(30평) 건물에 완파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터널 속 견턴 20대

KTX에 치여 숨져

28일 오전 7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인근 '장수터널'(길이 250m) 안 70m 지점에서 이모(24·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가 목포발 용산행 KTX 제402호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기관사 김모(38)씨는 경찰에서 "선로를 걷고 있던 2명을 250m 전방에서

발견,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를 했지만 열차가 600여m 가량 밀리면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이씨의 친구 고모(24· 서구 쌍촌동)씨는 "아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버스가 없어 철길을 따라 걸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제48조·81조)은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기자 emlee@

가을 산행 사고 잇따라

광주·전남 울 조난사고 177건 3명 사망

앞서 지난 27일엔 울산시 신불산(해발 1,159m)과 문수산(/ 600m)에서 등산객 2명이 숨졌다.

가을산에서 조난 사고가 많은 이유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단풍구경을 위해 날씨가 등산로 등 사전 정보 없이 무리한 산행을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을산

행은 이른 일몰시간과 추위 등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리한 산행을 피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비상식량과 상비약·휴대전화 배터리·손전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이날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177건(215명)의 산악 조난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2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20대 여성들 집단 환각 성매매

상나팔

○서울동부지검 형사부는 29일 인터넷을 통해 만나 히로뽕을 맞고 성매매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회사원 김모(38)씨와 여대생 이모(20)씨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역할대행 사이트'나 채팅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여성들과 한 차례에 100만원씩 주고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

○김씨와 만난 여성은 40명으로 서울 소재 유명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비롯해 회사원·영어 강사·간호사·무용수 등 20대 여성이 대부분.

○이를 중엔 친자매 여대생이 김씨와 '3차 성행위'를 하기도 했고, 30대 주부가 내연남과 함께 김씨를 만나 성매매를 바꿔 '스와핑'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with multiple listings. Includes a large ad for '조이트레블' (Joitrebelle) with contact number 234-3222, and several smaller ads for properties with prices ranging from 279,000 to 499,000. The ads feature photos of houses and text describing the properties.